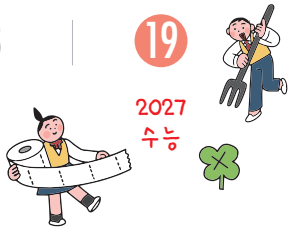
11월 학사일정 캘린더

정리 최은정 리포터 lagom@naeil.c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특성화고 특별전형 기간 한글 점자의 날	5	6	7
8	9	10	11 교내대회	12	13	14
15	16	17	18	19 2027 수능 	20	21
22 소설(小雪)	23	24	25	26 고교 설명회	27	28
29	30					

1주차
11.2~11.6

특성화고 특별전형 기간

☑ 2027 특성화고 입학 전형 시작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기르는 고등학교로, 입학 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뉜다. 특별전형은 일반전형보다 먼저 시행되며,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진로 적성이나 취업 희망 여부, 면접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11월 첫 주에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역과 학교마다 전형 일정은 물론 모집 학과, 지원 자격, 전형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공고와 지원하려는 학교의 전형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

2주차
11.9~11.13

교내대회

☑ 다양한 교내대회

11월 둘째 주에는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내대회가 열린다. 대회 부문은 교과 지식을 겨루는 학술 계열, 주제를 정해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탐구 계열, 외국어 말하기·쓰기를 포함하는 어학 계열, 직업 탐색과 진로 설계를 다루는 진로 계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다. 대회 종류와 일정, 참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자.

☑ 학생부 반영 및 대입 미반영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은 학생부 '수상 경력' 항목에 기록되지만, 2024학년 대입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회 참가 사실과 수상 내용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포함해 '수상 경력' 외 항목에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수상 여부보다 관심 분야를 직접 탐구하고 도전해보는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다.

11월에 필요한 알짜 정보

한글 점자의 날

11월 4일(수)은 '한글 점자의 날'이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2020년에 지정되었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올해는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특별전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을 내년 2월 14일까지 연다.

3주차
11.16~11.20

2027 수능

☑ 수능

2027학년 수능이 11월 19일(목)에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인쇄되어 시험 시간 중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종료령이 울린 뒤에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이어폰 등 통신 기능이 있는 물품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성적은 12월 11일(금)에 통지된다.

☑ 재량휴업

수능 다음날인 11월 20일(금)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가 많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대개 학기 초 학사 일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주차
11.23~11.30

수능이 끝난 후,
신입생 맞이
나서는 고교

☑ 고교 설명회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바로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11월 하순에는 설명회를 여는 고등학교가 많다. 설명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를 소개하는 자리다. 개최 시기와 방식, 안내하는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며, 사전 신청을 받는 곳이 많으므로 일정과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망 학교의 특징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고입 원서 접수 전에 참석해보는 것이 좋다.

11월의 절기(節氣) 이야기

소설(小雪)

소설은 24절기 중 스무번 째에 해당한다. 입동과 대설 사이에 드는 절기로, 이름에는 '적은 눈이 내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무렵이면 첫얼음이 얼고 첫눈이 찾아와 겨울 기분이 나지만 따뜻한 햇살이 남아 있어 '작은 봄'이라는 뜻의 소춘(小春)이라 부르기도 했다. "소설 추위는 빚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전해지는데 이는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된다"는 뜻이다. 올해 소설은 김치의 날과 날짜가 같아 입동 무렵부터 소설까지 이어지는 김장철과 함께 이야기하기 좋다.